

장백산천지

제 337 호

2018 년 10 월 14 일

일요일

유럽 여러 민족 수련생이 함께 “파룬따파하오(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칭송하다

[밍후이왕] 2018 년 9 월 29 일, 유럽 파룬따파 수련심득 교류회가 유럽 고성 프라하에서 성대히 열렸다. 약 1500 명 파룬궁수련생이 법회에 참가했다. 법회는 13 종 언어의 동성 번역을 제공했다. 체코,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라트비아,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등 국가의 20 명 파룬궁수련생들이 그들의 수련경험을 나누었다.

법회가 끝난 후 파룬궁수련생은 20 명 수련생이 20 가지 다른 언어로 한 단락씩 교대로 ‘전법륜’(파룬궁수련을 지도하는 주요저서)을 읽는 단체법학습을 시작했다. 법회장 안에서 20 가지 언어로 같은 책을 읽었다. 비록 각기 다른 민족문



■ 2018 년 유럽 파룬따파 수련심득교류회는 9 월 29 일 유럽 고성 프라하에서 성대히 열렸다. 그림은 교류회 회의장이다

화와 언어를 가진 수련생이지만 모두 마음속으로 부터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 ◇

홍콩 10월 1일 집회 대행진, 각계 파룬궁 성원

[밍후이왕] 2018 년 10 월 1 일 홍콩 파룬궁 수련생들은 성대한 반박해 집회 행진을 열고 중국공산당의 박해 저지, 박해 원흉을 사법처리할 것을 호소하고 아울러 평화적으로 중국공산당이 해체될 수 있도록 중화 아들딸에게 중국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를 성원했다. 정계요인 여러 명이 집회에서, 혹은 녹음 발언으로 파룬궁을 성원했으며, 파룬궁수련생의 길고긴 19 년간의 반 박해정신에 탄복한다고 표했다. 동시에 중국공산당의 폭정을 견책하고 각계에 공산당이 없는 아



■ 대행진은 세계는 진선인이 필요하다는 복음을 전했다.

름다운 신 중국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홍콩 전 입법회 의원 량귀송(梁國雄)이 현장에 와 성원했다. 그는 홍콩인에게 박해를 하루빨리 종

식할 수 있도록 중국공산당의 모든 탄압에 모두 용감하게 나서길 바란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전 입법국 의원 펑즈휘(馮智活)는 10 월 1 일을 경축할 것이 안 된다고 직언했다. “나라를 훔쳐 정권을 세운 중국공산당은 이기적인 사악한 범죄 집단입니다.” 그는 또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진·선·인(真、善、忍)을 가르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미래의 희망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사도는 정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천벌을 받을 겁니다!” ◇

언론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금지구역

[밍후이왕] 최근 85세의 노부인 리수셴(李淑賢)이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보석되어 치료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일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수셴은 허베이판핑(河北滦平)현의 농민이다. 현지 사람이 불법으로 땅을 차지해 그녀의 집 나무를 훼손했다. 그녀는 여러 차례 고발한 후 이어서 청원했는데 현지공안국에 의해 ‘트집을 잡아 말썽을 일으킨’ 죄로 기소 당해 82세 때 2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법’ 제72조에는 75세 이상은 집행유예로 규정하고 있지만 80여세인 리수셴은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법원에서는 결코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리수셴이 감옥에 들어간 후 요추압축성 골절을 앓았는데 감옥에서 2년 동안 2번 골절되어 침대에 누워 움직일 수 없었고, 대소변을 모두 침대에서 해결해야 했고, 스스로 생활을 자립할 수 없게 되었다. 가족들이 보석 치료를 신청했으나 허베이성(河北省) 여자 감옥에서는 마비되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침대에 누워 정양’한다고 하면서 보석치료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폭로된 후 민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청원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가? 법원에서는 또 어떻게 판결했는가? 수감된 85세 노인은 인간적인 관심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85세 할머니를 악의적으로 모함한 그런 사람들, 당신들은 정말 마음 편한가?”라는 비평들이 이어졌다.

이것은 중국 법률이 터무니없고, 사람을 무정하게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해를 당한 노년 파룬궁 수련생들 중에는 이 같은 경력이 매우 많다.

올해 6월, 80세의 파룬궁 수련생 정더차이(鄭德財)는 감옥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 가족들을 만났다. 그는 장허시(莊河市) 법원으로부터 1년 반 판결을 받아 난관링(南關嶺) 신입수감 감옥에 수감되었다. 가족들이 감옥에 강력하게 요구해서야 면회를 할 수 있었고, 정더차이가 고혈압, 과도하게 빠른 심장박동, 각혈 등의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허난(河南) 신상시(新鄉市) 팔손 파룬궁 수련생 자오메이전(趙美珍)은 2016년 10월 24일 오전 7시 무렵 경찰에 의해 집에서 납치되어 신상 구치소에 불법으로 이송되었다. 자오메이전은 혈압이 200으로 높았기 때문에 구치소에서는 받기를 거절했으나 검찰원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치소에서 받지 않았다! 직접 제5감옥으로 보낸다! 4년 형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종결된다.’고 떠들었다. 노인은 수감된 후 신체가 불편해졌고, 감옥 병원에서 혈압이 200이상으로 올라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가족들이 면회 갔으나 거절당했으며, 수감구역의 책임자 리제(李傑)는 “이곳에 온 사람은 만기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공군 제1세대 조종사, 국가의 2등 공신인 파룬궁수련생 위창신(於長新)은 2000년 1월 6일에 17년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 감옥에 수감될 때 이미 70여세였다.

파룬궁수련생 송후이핑(熊輝豐)은 퇴직 전 항천부 8358 연구소 부소장, 연구원, 중국 우주학회 이사였으며 국가특수수당을 받는 전문가였다. 2014년 8월, 파룬궁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로 그때 76세인 송후이핑 노인은 재차 집을 수색 당하고 납치된 후 7년 반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파룬궁은 1992년부터 오늘날까지 26년간 널리 전해졌으며, 당시 60여세에 수련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오늘날 이미 90세 안팎이 되었는데 이런 노년 파룬궁 수련인들이 적지 않다. 그들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은 집에 찾아온 경찰에게 소란 당한 적이 있으며, 노동교양과 징역형을 받은 적도 있고, 심지어 온 가족이 박해당해 몇 년간 심신에 극심한 손상을 받았다. 그들이 겪은 박해는 리수셴 노인보다 더 심하였지만 단지 파룬궁은 언론 보도의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블랙박스를 열기가 어렵다. ◇

88세 노인이 골절된 후 기적적으로 낫다

글/ 후베이 노인

나는 올해 88세다. 2018년 6월 22일 갑자기 넘어졌는데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골반 골절이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아 보류하기로 했다. 병원에서 매일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으나 효과가 없

었고 붓고 아팠다.

식구들은 조급해했고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는 딸은 퇴원하고 집에서 휴양하자고 했다. 대법제자들은 말한다. 한 사람이 수련하면 온 가족이 이득을 본다고. 나는 선량하고 진실한 이 말에 큰 희망을 품었다. 딸이 대법을 수련

하기에 나는 이 몇 년 동안 평온하게 생활해왔다. 나는 성심으로 딸이 알려준 대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 하오(真善忍好)”를 묵념했다. 그 다음날 딸이 파룬따파 서적 두 권을 가지고 와서 낭독해주었는데 매우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4면에 계속)



천고의 영웅이 남긴 신유

■ 문:다용

우리는 어릴 때부터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 TV 에서 장제스(蔣介石 장개석)은 영락없는 ‘반동파’로 보였다. 만약 당신이 대기원 편집부에서 내보낸 ‘천고의 영웅인 물-장제스’를 볼 기회가 있다면 역사상의 진실한 장제스가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장제스는 왜 공산당을 간파할 수 있었는가

1923년 8월 16일~11월 29일, 장제스는 국부 쑨중산(孫中山, 쑨원)의 파견으로 소련 각지를 방문해 소련공산당의 주장, 조직 형식 등에 대해 이미 초보적으로 이해했다. 몇 년 후 장제스는 ‘소비에트 러시아는 중국에 있다’라는 책에서 (소련 방문으로 자신은) “소비에트 정치 제도가 바로 독재와 공포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됐다”라고 썼다.

1926년, 사분오열된 중국은 장제스가 북벌(北伐)전쟁을 이끌어 첫 결실을 본 반면 공산당은 국민 정부의 친공산당 분자를 총동원해 우한(武漢)에 별도의 정권을 세우고 북벌을 교란했다. 장제스는 ‘전체 장병에게 알리는 글’에서 “우리 국민 혁명군이 장시(江西)에서 목숨 걸고 혈전을 벌일 때가 바로 공산당이 후난(湖南) 후베이(湖北)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다. 우리 전방의 장병들이 저장(浙江), 장쑤(江蘇)에서 싸움이 가장 치열할 때 우한측은 고의로 트집을 잡고 급료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으며, 한 발의 총알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고 썼다. 속이 다르고 겉으로는 북중 하나 속으로는 따르지 않는 것은 공산당에게는 늘 있는 일이다.

1927년 ‘4.12’ 숙당은 공산당 부체에 대한 장제스의 한 차례 대숙청이었다.

당시 사회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장제스는 “공산당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아서가 아니고 신경이 무감각한 중국

민중이 18 층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아 각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공산당은 신문, 선전 시스템을 통제해 거짓말을 진리처럼 만들었다.

1950년에 이르러 중국공산당의 일련의 만행은 중국공산당의 사악함에 대한 장제스의 판단을 실증했다. 장제스는 “중국공산당이 잔인하기 그지없는 수단으로 이른바 ‘농업 집단화’, ‘상공업 민관 합작 경영’과 ‘사상개조’, ‘문자개혁’ 등 폭정을 추진했다”고 호되게 비난했다.

1967년, 중국은 문화혁명의 난을 겪어 반(反)전통이 극에 달했다. 장제스는 뼈저리게 뉘우치면서 중국공산당은 “전 인류, 전 민족의 대적(大敵)이다. 단지 시간의 시련 속에서 민족의 대의가 쇠약해지기 전에 그들의 사기, 공포, 잔인, 광기의 추잡한 범죄를 폭로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에 대해 장제스는 개괄적으로 말했다. “공산주의의 오만한 악당들은 세계의 모든 종교를 파괴할 필요가 있고, 그들 공산주의를 숭배하지 않는 모든 인류를 반드시 파괴할 수 있으며, 그들 공산주의가 세계를 통치할 필요가 있다고 외치고 있다. 오늘날 그들의 모든 박해, 투쟁, 모함과 공개재판 등 모든 행위는 마치 1900년 전의 신약시대 악마인 ‘사탄’과 같다.”

중국에 대한 공산악마의 재난과 변란의 전체 과정을 목격한 장제스는 공산 사악의 결말에 대해 한마디로 정곡을 찔렀다.

1972년, 한국의 덩이취안(丁一权) 전 총리가 타이완을 방문해 장

총통을 회견할 때 장제스는 유럽 공산주의가 1990년에 붕괴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덩 총리는 이해하지 못해 ‘당신은 1990년대를 가리키는 것이지요?’라고 되물자 장제스는 ‘아닙니다, 저는 1990년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한발 늦을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어둠속에 신의 가르침이 있는 듯

1990년 6월, 동독 정부는 공식적으로 베를린 장벽을 철거하고 동서독을 합병하기로 결정하여 유럽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됐고 소련도 뒤이어 해체되고 말았다. 세계 범위를 전면적으로 관찰하면 유럽공산주의 종결 시점을 누구도 예측한 사람이 없었는데 장제스는 1990년까지 정확하게 예측했다!

‘9 평공산당’은 공산악령 부체의 속성, 세력을 키운 수단, 반(反)우주 특성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공산당의 사교적 본질을 폭로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가면, 거짓말을 철저히 벗겨버렸다.

2억7천년 전의 “장자석(藏字石)”이 있다. 거석에 천연적으로 형성된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產黨亡)’이란 6개 큰 글자 세인을 경고하여 사람에게 전시됐다. 이는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공산당은 나쁜 짓을 너무 저질러 신과 사람이 모두 분노하게 되어 멸해야 한다.

1990년 유럽공산당이 붕괴된 후 중국공산당은 20여 년 동안 겨우 연명하고 있다. 현재 한 개의 기둥으로는 쓰러져가는 집을 지탱할 수 없듯이 만신창이 되었다. 소중한 중국인이여, 당신은 아직도 무엇을 주저하고 있는가? 당 조직에서 퇴출하라. ◇



◀ 구이저우성 평탕현 장부향 풍경구의 “장자석(藏字石)”에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產黨亡)”이란 6개 큰 글자가 나타났다. 사진은 풍경구 입장권이다.

한 한국 초등학교 교장의 인생 반전

[밍후이왕]올해 56 세인 최영숙은 한국 김해 이북초등학교 교장이다. 그는 한 쌍의 우수한 아들 딸과 집안일을 잘 돕는 남편이 있다. 현재 그는 생활이 평안하고 즐거워 늘 웃음을 얼굴에 달고 있다.

재난이 닥치다

하지만 그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14 년 전 최영숙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 약봉지를 늘 달고 살다시피 했는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다. 더욱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어린 딸이 재생불량성 빈혈 (再生障碍性贫血)에 걸려 경상적으로 수혈해야했다. “그때 진짜 충격이었죠.” 그때 최영숙은 “나는 어린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처에 헤매면서 좋은 치료 방법을 찾았으나 선명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로서 시종 포기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희망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반전

“2004 년의 어느 하루, 저의 인생에서 큰 기회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라고 최영숙은 흥분해 말했다. 당시 딸과 함께 다니던 자양식품방 원장이 심신



■ 초등학교 교장 파룬궁수련생 최영숙

건강에 좋다고 파룬궁을 그녀에게 소개했다. 이 공법은 신심건강에 유익하다면서 그녀 딸의 신체에 아주 좋다고 했다. 이렇게 되어 그녀의 말대로 “의혹이 있었지만 들어가 보았는데 생각밖에 평생을 수련할 수 있는 행복한 길이었어요.”

수련 후 최영숙의 신체 건강은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수련하기 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약을 먹어야 견딜 수 있었고, 한의사가 맥을 잡으면 오장육부가 다 바닥이라 했어요. 그래서 40 이 넘으면 몸이 지탱하기 힘들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련을 시작한 지 14 년이 지났지만, 보약 한 번 먹은 적이 없고 병원에 간 적도 없어요.”

파룬궁을 수련한 후 최영숙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수련을 지도하는 <전법륜(转法轮)> 책에서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된 근원과 어떻게 해야 병 뿌리를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해 알게 되어 그녀로 하여금 딸 병세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수련 후 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 비관적인 마음, 싫은 마음 등 각종 좋지 않은 마음이 짧은 시일에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딸 병세 때문에 아주 힘들었으나 수련 후 신기하게 그 기분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마음은 파룬따파에 대한 감사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줄곧 파룬궁의 수련원칙 ‘진선인(真、善、忍)’으로 자신을 요구하고, 심성수련을 중시하고 규칙적인 연공으로 신체가 건강해지고 가정도 더욱 평화로워졌다.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생활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순조롭게 승진했다.

“가장 다행한 것은 당시 난치병이었던 딸도 함께 수련하여 10 여년이 지나 현재는 아주 건강하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한다.” 그는 감개해 말했다. “리홍쯔(李洪志)대사님에 대한 감격과 경의는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

(2 면의 계속) 제 1 강부터 제 9 강까지 열흘이 안 되어 전부 읽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읽기 시작했고 책 속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했다.

열흘 째 되던 날 아침 6 시쯤 나는 이마에서 무언가 돌고 있는 것을 느꼈다. 무엇일까? 이때 책 속의 파룬도형이 생각났는데 이건 파룬이 아닌가? 나는 큰 소리로 리대사님! 리대사님! 하고 외쳤다.

나는 아픔을 잊고 침대에서 일어나 혼자서 거실까지 와서 소리쳤다. “나는 파룬을 보았다. 나는 파룬을 보았다!” 흥분되어 어린이마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이 진실임을 믿었고 내 몸에서 기적을 보았다. 생각해보라 젊은 사람도 뼈를 다치면 100 일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는데 90 세에 가까운 노인은 어떻게겠는가? 만약에 사부님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목숨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골절된 후 20 여일 만에 걸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때부터 나는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고 걸어 다녔다. 목욕도 혼자서 했고 4 층에서 1 층까지 오르내렸는데 마음이 아주 유쾌하였다. 모두 나를 보고 신기하고 불가사의하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이 내 몸에서 체현되었어요. 내가 바로 생생한 예입니다. 짧은 20 여 일만에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리대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금후에 반드시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

53 일째 되던 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의사는 기적이라 했고 식구들도 휠체어도 사 놓았는데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여기서 “리대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씀 드린다. ◇